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과 헤이케(平家) 일족 멸망의 관련성 분석을 중심으로 -

백진숙*

차례

서론

1.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의 입지
2.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과 헤이케(平家)의 대립 구도
3. 3종 신기의 의미와 그 환원에의 노력
4. 헤이케(平家)의 멸망과 왕권 부흥에의 시도

결론

서론

『헤이케모노가타리』¹⁾(平家物語)는 헤이안(平安) 말기에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 대두하여 더할 나위 없는 영화를 누리던 헤이케(平家)가 겐지(源氏)와의 치열한 공방전을 거치며 점차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중세 문학의 대표적 산문 작품이다.

『平家物語』는 흔히, ‘祇園精舎의 종소리는 제행무상의 울림이 있다. 沙羅 雙樹의 꽃의 색깔은 盛者必衰의 이치를 나타낸다(祇園精舎の鐘の聲, 諸行無常の響あり。沙羅 雙樹の花の色, 盛者必衰のことはりをあらはす)²⁾’는 冒頭の 유명한 문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품의 불교적 사상과 무상관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平家物語』는 불교적 무상관으로 단순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정치, 사상, 종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또한, 『平家物語』는 이전의 군기모노가타리와는 달리 어느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지도 않다. 이제껏 『平家物語』는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미나모토노 요시나카(源義仲)·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라는 세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파악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平家物語』의 이들 주인공의 인물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平家物語』는 보통의 소설처럼 중심 인물이 행동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작품 전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배후에 숨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도 많다. 이러한 시각에서 작품 전체에 그려진 수많은 인물상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해보면, 각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개별적 개성보다는, 전체적 시각에서의 시대적 흐름에 중점이 두어져서, 그 흐름 속에서 각 인물상이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平家の 중심축이 되는 기요모리는 뛰어난 무장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는 싸움에서의 승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위의 승진을 통해 유력 무사귀족으로 거듭나려 했다. 平家の 본질이 귀족적이었는지, 무사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분명 平家は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당시 平家が 나아간 길은 귀족으로서의 영화였다. 원래 平家は 귀족적인 체제 하에서 院政에 접근하여 院에게 봉사하는 근신으로서 특히 무력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용병으로서 발전해 온 것이어서, 결코 院政 밖에서 세력을 늘려온 것은 아니었다. 즉, 平家は 귀족 사회의 체제 가운데에서 관위의 승진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원래 平家は 대대로 院政과의 결탁에 의해 세력을 향상시켜왔으며, 기요모리도 호겐의 난(保元の亂) 이후 院政을 담당했던 고시라카와(後白河) 법황에게 군사적, 재정적 봉사를 제공해 왔었다. 결국, 둘은 자신의 세력 유지를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던 셈이다.

『平家物語』에서의 기요모리(清盛)는 포화무도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성격은 고시라카와 법황과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작자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 법황에 대한 직접적 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작자가 모노가타리 속에서 법황에 대해 충분히 그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시모다(石母田正)씨는 궁정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사정으로 인한 정치적 제약과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그리려는 모노가타리 자체의 성질에서 오는 제약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³⁾

배후에서 교묘하게 모든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고시라카와 법황은 사실 平家 멸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작품 내면에 감춰진 법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平家物語』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가타리(語り)本系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가쿠이치본(覺一本) 『平家物語』⁴⁾를 텍스트로 삼아, 뭔가의 이유로 작품 구성의 이면으로 감춰져서 묘사된 고시라카와 법황이 平家 일족의 멸망과 어떠한 구도로 관련지어져서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의 입지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은 도바(鳥羽)천황의 네 번째 왕자로, 어머니는 다이겐몬인(待賢門院)이다. 도바 천황에게는 두 황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고시라카와 법황과 스토쿠(崇徳)천황의 어머니인 다이겐몬인(待賢門院)이고, 또 하나는 고노에(近衛)천황의 어머니인 비후쿠몬인(美福門院)이었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스토쿠와 고시라카와 두 형제간의 세력 다툼으로 일어났던 호겐(保元)의 난 이전의 皇統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시라카와의 형인 스토쿠 상황으로 이어지는 계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비후쿠몬인의 아들이자 고시라카와와는 배다른 형제인 고노에 천황으로 이어지는 계열이었다.⁵⁾ 이러한 계열 구도 속에서의 고시라카와의 입지는 그 두 계열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고시라카와의 아들에는 니조(二條)와 다카쿠라(高倉)가 있었는데, 이 중 니조는 비후쿠몬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노에 천황이 이른 나이에 죽자, 도바인(鳥羽院)·비후쿠몬인(美福門院)등의 세력은 고시라카와의 아들인 니조의 즉위를 원하였는데, 니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문제시되어 니조의 즉위가 어렵게 되자, 두 세력간의 중간 연결자적 입장이 된 고시라카와가 천황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다.

가마쿠라 초기에 지엔(慈円)에 의해 쓰여진 일본 최초의 史論書인 『구칸쇼(愚管抄)』에 이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여 주목된다.

院(鳥羽院)은 다음 자리의 계승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넷째 왕자로서 後白河院은 待賢門院의 배에서 났으며, 新院(崇徳)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크게 소문이 날 정도로 예능 따위를 즐겨서 즉위에 합당한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近衛院의 누나인 八條院 공주를 女帝로 할 것인지, (아니면) 新院의 첫째 아들로 할 것인지, (혹은) 이 네 번째 왕자의 아들인 어린 二條院을 즉위시킬 것인지 갖가지로 궁리하여..⁶⁾

위 인용 부분은 고노에 천황이 즉위한 후 너무 이른 나이에 죽자, 다음 천황 자리를 두고 도바인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고시라카와는 예능에만 빠져있어 천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 도바인은 고시라카와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니조가 너무 어리고, 또한 그의 친아버지인 고시라카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순서를 제킨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것이라는 대세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시라카와를 먼저 즉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즉위 과정을 보면 고시라카와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태에서 황위에 오른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으며, 保元·平治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만큼 항상 정통성의 문제가 따라다니게 된다.

고시라카와의 즉위 과정을 둘러싼 이와 같은 문제성은 『平家物語』의 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平家物語』에 그려진 고시라카와의 인물상 분석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고시라카와와 平家 일족 멸망의 관련성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텍스트에 보이는 고시라카와의 인물상 관련 내용을 통하여, 작품 속에 그려진 고시라카와의 인물상을 우선 부각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도바 상황이 죽고 난 후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다.

특히 永曆·応保 무렵부터 고시라카와인의 근신들을 니조천황이 경계하고, 니조천황의 근신들을 院이 경계하였으므로 상하 모두 두려움에 떠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완전히 깊은 물 위에서 얇은 얼음을 걷는 듯이 전전공공하고 있었다. 천황과 상황 두 부자 사이에는 어떤 격의도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의외의 일 등이 일어났다. 이것도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사람이 악덕한 일을 제일로 삼기 때문이다. 천황은 院의 명령에 항상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크게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밑줄 필자, 이하 동)⁷⁾

위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상호간의 근신들을 경계하여 「상하 모두 두려움에 떠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니조 천황과 고시라카와인과의 사이가 상당히 결끄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자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로를 경계하는 이 세상을 『平家物語』는 「말세」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세」라는 표현의 진원지가 바로 고시라카와인과 천황의 좋지 못한 관계성이었던 셈인데, 작자는 천황이 항상 院의 명령에 반대하고 있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천황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듯한 묘사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그 뒤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까지 첨언함으

로써, 일반 사람들에게서까지 비난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천황상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平家物語』는 고시라카와에게 결여된 정통성에 대한 이유이기도 했던 니조를 나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니조의 부정적 이미지 부각을 통해 고시라카와의 정통성 결여를 메워보려는 『平家物語』의 묘사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平家物語』의 인물 묘사 방향성은 법황의 정통성 획득 과정의 기술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平家와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2.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과 헤이케(平家)의 대립 구도

사실 기요모리는 保元(保元)의 난과 平治(平治)의 난 모두 고시라카와 법황 쪽에 있으면서 승리를 거둔 인물로 두 세력은 원래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기요모리의 자식들도 고시라카와의 주변 인물들을 모시면서 院의 세력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다했다.⁸⁾ 하지만, 平家が 정권을 장악해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고시라카와 법황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됨에 따라, 양자는 점차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平家物語』에서 그리는 그 최초의 표면화가 바로 시시가타니(鹿ヶ谷)사건이다.

『平家物語』에서는 시시가타니 사건 직전의 기술로서 다카쿠라가 동궁에 서고, 천황에 오르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다카쿠라의 어머니는 기요모리의 부인인 니이도노(二位殿)의 여동생이며, 즉위한 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겐레몬인(建禮門院)은 기요모리의 딸이므로 平家の 영화는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커진 平家の 세력은 이후 겐레몬인이 낳은 아들 안토쿠(安徳)가 천황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극에 달한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황의 외척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권력을 거머쥔 자리이며, 이로써 平家は 일개 신하에 불과한 세력이었지만 법황조차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라카와 법황과 平家は 원래 협력적 위치였지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고, 법황은 平家를 꺾음으로써 부족한 정통성을 획득해야만 했던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천황권의 실권은 平家が 쥐고 있었다. 따라서, 고시라카와 법황쪽과 천황쪽의 대립의 실상은 고시라카와 법황과 기요모리와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이마나리(今成元昭)씨의 주장처럼, 院政의 중심인 고시라카와 법황과 경제·군사의 중심에 있었던 기요모리가 권력 다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을 지도 모른다.⁹⁾

『平家物語』는 시시가타니(鹿ヶ谷) 사건을 그 어떤 모반 사건들보다도 크게 부각시켜서 기술하고 있는데, 나리치카(成親)가 자신이 바라던 大將자리를 모두 기요모리의 자식들이 차지하게 되자 이에 복수심을 품게 되고 이러한 복수심을 계기로 시시가타니(鹿ヶ谷)산장에서 院의 근신인 순칸(俊寬), 사이코(西光), 야스요리(康賴) 등과 平家を 토벌할 음모를 짰 것을 시시가타니 사건의 전말이라 기술하고 있다. 『平家物語』는 이러한 나리치카의 복수심이 사실상 시시가타니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범황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어떤 때 가끔씩 행차하시는 일도 있었다(或時法皇も御幸なる)’는 정도로만 묘사하여, 이 사건을 院의 근신인 나리치카의 출세를 위한 개인적 야망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사실상 고시라카와 범황이었다.

사실, 『平家物語』는 시시가타니 사건을 매우 크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의 대부분은 사실상 범황의 근신들의 처벌에 대한 것이어서 실제 주모자격인 고시라카와 범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요모리를 왕권을 거스른 반역자로 만들고, 시시가타니 사건의 실패를 범황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서술 방식은 피하고 있다.

고시라카와 범황과 平家は 이처럼 시시가타니 사건을 계기로 대립이 불거지지만, 기요모리의 아들 시게모리(重盛)가 이들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며 두 세력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平家物語』에서의 시게모리라는 인물은 비록 기요모리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와는 상당히 다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시게모리는 상당히 사려깊으며, 악을 대표하는 기요모리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선의 이미지를 지닌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平家物語』에서의 시게모리는 역사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시게모리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키모토(杉本圭三郎)씨는 청중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인물상을 명확하게 그려내야 할 필요가 있는 가타리모노의 특성을 밝히며, 악의 화신으로서의 기요모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와 대조적인 시게모리도 현실적인 모습보다 훨씬 과장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¹⁰⁾.

앞에서 다룬 것처럼, 니조와 고시라카와의 다툼을 다룰 때에는 아버지에게 늘 반대하는 니조를 비판적으로 그렸음에 반해, 자신의 아버지인 기요모리와 대립을 보이지만 범황에게 충의를 다하려는 시게모리에 대해서 작자는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시게모리는 왕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죄를 지우려는 기요모리를 완

화시키면서 법황과 기요모리의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게모리는 기요모리와 법황 사이를 중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황을 설득하는 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요모리만을 설득시키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대립을 완화시키던 시게모리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써 법황과 기요모리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시게모리의 죽음은 단순히 앞으로 平家の 세력이 기울 것임을 암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황과 기요모리의 대립에 있어서의 중재자의 부재로 인해 화해의 구도로 돌아오기 힘들 것임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게모리가 죽고 난 후, 기요모리는 고시라카와 법황이 보낸 조겐호인(靜憲法印) 앞에서 그동안 법황에게 쌓였던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는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제까지의 붕공을 생각하면 7대까지는 이 一門을 어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入道)가 70살에 가까워지고, 여생도 얼마 남지 않은 1대 중에서조차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실로, 자손이 줄줄이 조정에 봉사하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¹¹⁾

조겐에게 기요모리가 한탄하는 내용을 보아도 파악할 수 있듯이 법황의 平家 탄압도 실로 가혹한 것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행위는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던 기요모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에 그쳐 진실성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平家物語』는 이러한 법황의 모습은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황의 가혹함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재빨리 시점을 이 사건 후 기요모리가 關白을 비롯해 태정대신 이하의 조정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43명을 해임시키고 추방시키기에 이르르는 악독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기요모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천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지낸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기요모리와 법황의 대립은 법황의 도바도노(鳥羽殿)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달는다.

시게모리의 죽음 이후로 두 세력 사이를 풀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기요모리의 사위이자 고시라카와 법황의 아들이라는 입장에 처해있어 시게모리처럼 두 세력 사이에 끼어있는 다카쿠라(高倉)천황이다.

다카쿠라 천황은 시게모리보다는 세력이 약해 기요모리와 정면적으로 대결하지는 못한다. 기요모리의 의지에 따라 기요모리의 딸인 겐레몬인의 배에서 난 안토쿠(安徳)에게 자

리를 양위하고, 院의 자리에 오르게 된 다카쿠라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요모리를 달래고자 이쓰쿠시마(巖島) 참배라는 묘안을 생각해내고 이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平家物語』에 의하면, 천황이 양위한 후 신사에 처음 행차할 때에는 주로 하치만(八幡)·가모(賀茂)·가스가(春日)에 갔으므로 이쓰쿠시마로의 행차는 특이한 일이었다. 실로 이쓰쿠시마 神社에 대한 기요모리의 신앙은 각별했으며, 平家 일족이 숭배한 것으로 유명하다. 『平家物語』 속에서의 기요모리는 상당히 악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신앙심만은 두터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다카쿠라도 기요모리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한 것이다.

즉, 다카쿠라인(高倉院)은 선례를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고시라카와의 유포를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요모리의 이쓰쿠시마에 대한 각별한 신앙을 이용한 셈이다. 중세는 상당히 종교의 힘이 크게 작용했던 시대지만, 그 이상으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기타카와 다다히코(北川忠彦)씨의 주장처럼¹²⁾, 종교를 통해 극락 왕생과 같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한 사상이 다카쿠라인의 고시라카와 법황의 유포를 위한 이쓰쿠시마 참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기요모리도 생각을 고쳐먹어 결국 도바도노로부터 법황을 풀어주게 된다.

이후 조정의 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기요모리는 고시라카와 법황에게 다시 院政을 재개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르고, 결국 院政은 재개된다. 이렇게 하여 법황과 기요모리 사이에 두 번의 유포와 해제가 이루어지는데, 두 세력이 서로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두 세력은 자신의 권력 확보를 위해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쥔 고시라카와 법황과 군사,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쥔 平家は 다른 면에 있어서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몇 번의 갈등을 겪으면서 법황과 사이가 벌어졌던 악행의 화신 기요모리는 결국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이미 平家の 가장 큰 힘이었던 기요모리와 시게모리를 잃은 平家の 운은 급격하게 기울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는 또 하나의 큰 세력을 차지하며 平家を 토벌할 계획을 세우고 잇따른 전투에서 平家を 무찌른다.

平家が 의지할 마지막 세력이었던 山門마저 平家を 등지게 됨에 따라, 平家は 더 이

상 버티지 못하고 수도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平家 一族은 마지막으로 천황과 법황을 함께 모시고 도망갈 준비를 세우는데, 법황은 平家가 자신을 동행하여 도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御所를 빠져나와 여러 절들을 전전한 끝에 법황은 요시나카 군의 수호를 받으며 귀경한다. 법황은 이제 平家를 배신하고 겐지 세력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로 돌아온 법황은 이제 천황과 3종의 신기의 행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平家의 一族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요시나카에게 내린다. 이로써, 법황의 마음은 완전히 平家로부터 떠나게 되고 자신의 정당성의 회복을 源氏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구하려고 한다. 고시라카와는 기요모리의 죽음 이후 급격히 쇠퇴한 平家 세력에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平家物語』의 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황은 안토쿠 천황이 외척인 平家에게 포로로 잡혀서 西海의 파도 위에서 떠다니는 것을 한탄하시며, 천황 및 3종의 신기를 수도로 돌려보내도록 西國에 명령을 내리지만, 平家は 그 말에 따르지 않는다.¹³⁾

법황은 천황과 신기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平家は 이 말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두 세력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하지만, 平家の 세력이 거의 다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과 3종의 신기를 平家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아직은 平家 쪽 세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두 세력이 모두 平家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황도 이를 알고 이 두 가지를 돌려받으려 명령을 내린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3. 3종 신기의 의미와 그 환원예의 노력

『平家物語』의 고시라카와 법황에 대한 작품 후반의 구도는 신기의 흐름에 의해 많이 상징되고 있다. 따라서, 그 흐름을 짚기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신기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3종의 신기란 천황의 위치에 대한 증표로써 전해져 내려온 세 가지 보물, 즉 거울(八咫鏡:야타노카가미), 칼(草薙の劍:구사나기노쓰루기), 구슬(八尺瓊勾玉:야사카니노마가타

마)를 가리킨다. 이들에 대한 기원은 『고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의 神代記·神代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이 『平家物語』에서도 독립된 장들로 구성되어 설명되고 있는 만큼 『平家物語』의 작자 역시 이들의 신성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늘의 바위굴로부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를 불러낸 야사카노마가타 마(구슬)와 거울, 거기에 구사나기노쓰루기(보검), 또한 도코요노오모이카네노카미·다지카라오노카미·아메노이와토와케노카미를 팔려보내며 명하시기를 「이 거울은 오로지 나의 혼으로서, 나를 제사지내도록 하라」고 하며..¹⁴⁾

위의 인용은 『古事記』에서 아마테라스의 천손 니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손강림에 관한 부분이다. 아마테라스가 구슬, 거울, 보검을 주며 ‘이 거울은 오로지 나의 혼으로서 나를 제사드리도록 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3종의 신기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며, 이후 천황 즉위에서 정통성에 대한 증표로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무라카미(村上重良)씨에 의하면, 특히 平家 멸망 때 안토쿠 천황과 함께 검이 바다에 가라앉음으로써 함께 가라앉은 전사한 무사들이 천황을 수호한다고 하는 군신일체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로써 정치적, 사상적인 의미에서도 3종의 신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¹⁵⁾ 따라서, 『平家物語』가 쓰였던 당시에는 3종의 신기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어느 정도 널리 퍼져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고시라카와 법황은 정통성에서 문제시되는 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법황은 신기를 지님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平家物語』가 3종의 신기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어쨌거나 3종의 신기를 지닌 안토쿠 천황이 平家와 함께 수도에서 도망가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기도 이동하게 된다.

平家の 수도 탈출로 인해 사실상 平家の 세력이 거의 끝에 다달았음을 알게 된 상황에서, 법황은 平家와의 직접적인 대립 구도에서 조금 벗어나 이제는 신기 환원을 목표로 平家を 회유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게 된다.

법황은 平家を 타도하기 위해 여러 세력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여 이것이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신기 탈환을 위해서는 무사 세력을 이용한다. 법황은 우선 강한 세력으로 대두하고 있던 요시나카에게 명령을 내려 平家を

토벌하고, 3종의 신기를 돌려받기를 원했으나 요시나카의 죽음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자, 그 다음 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에게 다시 平家 토벌에 의 명령을 내린다.

“우리 나라(일본)에는 神代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3개의 보물이 있다. 內侍所(거울), 神璽(구슬), 寶劍(칼)이 이것이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무사하게 이것을 수도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린다.¹⁶⁾

위의 예문을 보면 법황에게 명목상으로는 平家を 타도한다는 구실이 있었지만, 平家 토벌군인 요시쓰네에게 平家 토벌에 대한 것보다도 신기를 무사하게 탈환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시라카와 법황의 平家 토벌의 제일 큰 이유는 3종 신기 탈환에 있었던 것이다. 平家の 가장 큰 세력이었던 기요모리가 죽은 상황에서 법황은 平家 세력의 저하에는 이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요시쓰네 군은 이치노타니(一の谷)에서의 기습 공격으로 平家を 대혼란에 빠뜨리고, 平家の 유명한 장군들이 대거 당하게 된다. 이 때 법황에게 아주 유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요모리의 아들 중 하나인 시게히라(重衡)가 요시쓰네의 부하의 손에 생포되어 源氏쪽의 포로가 되게 된 것이다. 이 시게히라라는 인물은 『平家物語』에서 기요모리의 아들 중 기요모리와 그의 부인 니이도노가 특히 애지중지하여, 平家 일가의 사람들이 모두 중시했던 인물이라 서술되고 있다. 또한, 적군들조차 감탄할 만큼의 품위를 지녀 시게모리와 더불어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平家로부터 신기를 탈환할 볼모로서 이용하기에 시게히라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야시마(八嶋)에 돌아가고 싶다면, 平氏 一門에게 연락하여 3종의 신기를 수도로 돌려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야시마로 돌려보내 주겠다.¹⁷⁾

이처럼 법황은 포로로 잡혀있는 시게히라에게 3종의 신기만 수도로 돌아온다면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平家로부터 신기를 탈환하려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시게히라를 통해 平家を 회유하려고 한 것이다. 천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게히라의 가문에서의 중요도를 생각해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3종 신기와와의 맞교환 조건은 平家에게 있어서도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平家 일족은 의견을 모아 시게히라가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중요한 인물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신기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법황은 이처럼 3종의 신기를 돌려받기 위한 회유책을 몇 번이나 썼지만, 결국 平家は 궁지에 몰린 가운데서도 3종의 신기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법황 쪽이었으며, 왕권 자체도 법황이 있는 수도와 3종의 신기를 지니고 있는 안토쿠 천황의 두 세력으로 갈려진 듯한 상태가 지속된다. 기요모리와 시게모리라는 가문의 두 축이 사라진 후에도 平家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유도 平家에게 아직 3종의 신기를 지닌 천황이 있었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4. 平家の 멸망과 왕권 부흥에의 시도

왕권이 두 세력으로 갈린 가운데, 平家は 야시마(八島)에서 수도를 떠난 지 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고, 그 무렵 京都에서는 새로운 천황의 즉위가 행해진다.

內侍所, 神璽, 寶劍도 없이 즉위가 행해진 일은 진무(神武)천황 이래 82대째에 이르렀지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다.¹⁸⁾

위 인용문은 3종의 신기 없이 행해진 고토바(後鳥羽) 천황의 즉위에 대한 묘사이다. 대대로의 천황들은 진무(神武) 천황의 계보를 죽 잊고 있었다. 따라서, 정통성이 결여된 고시라카와 법황이 세운 고토바 천황 역시 정통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데다가 이번 즉위는 전례없이 신기 없이 행해졌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즉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적어도 모노가타리 내에서는 새로운 천황의 즉위가 행해진 시점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 정통적인 왕권이 안토쿠 천황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平家は 야시마 전투에서 요시쓰네 군에게 패한 후 도망가고, 源氏が 뒤쫓아 와 두 세력은 단노우라(壇の浦) 근처에서 다시 진을 치게 된다. 처음에는 승리의 기세를 잡았던 平家は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平家 一族들은 하나 둘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그 날 밤 오전 0시경에 内侍所와 神璽가 들어있는 상자가 태정관의 正廳으로 들어갔다. 보검은 없어져 버렸다. 神璽는 바다 위에 떠있던 것을 가타오카타로 쓰네하루(片岡太郎經春)가 건져 올렸다고 하는 소문이었다.¹⁹⁾

위의 인용문은 단노우라 전투 이후에 3종 신기의 행방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다. 구슬은 쓰네하루(經春)가 건져냄으로써 앞서 되찾았던 거울과 함께 조정, 즉 고시라카와 법황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로써, 법황은 그렇게도 집착했던 신기를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검이 바닷 속으로 가라앉아 없어졌다는 사실은 아직도 법황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에 틀림없다. 보검과 마찬가지로 바닷 속으로 가라앉은 平家一族이 원령이 되었다는 소문이 당시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미문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 일은 이제부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十善帝王(천황)이 수도를 떠나 몸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히고, 大臣·公卿이 죄인으로서 대로를 끌려 다니고 그 목이 옥문에 걸렸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령은 두려운 일이므로, 이 세상도 어떻게 될 것일까 라며 도리를 아는 사람 중에 탄식하며 슬퍼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²⁰⁾

이에 대한 사건은 중세의 유명한 수필인 가모노 초메이(鴨長明)의 『호조키(方丈記)』²¹⁾에도 나타나 있다.

집 안에 있으니 갑자기 짓눌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밖으로 달려나가니 땅이 갈라진다. 날개가 없으므로 하늘도 날 수 없다. 용이라도 된다면 구름에라도 오를 수 있을 텐데, 인간의 슬픔이여. 지진이야말로 두려운 것 중에도 두려운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통감한 사건이었다.²²⁾

위의 두 인용문은 平家が 몰락한 단노우라(壇の浦) 사건 이후 4개월 뒤에 일어난 대지진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이다. 두 작품은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대지진의 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지진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으며, 두 작품 모두 ‘두렵다(恐ろしき, 恐れる)’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때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에 있어서의 두려움의 대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平家物語』는

사건의 객관적 묘사보다는 대지진을 통해 그 사건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원령, 즉 平家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음에 반하여, 『方丈記』는 대지진이라고 하는 지진의 참상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자연현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인식을 달리하는 두 작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平家物語』의 작자는 법황에게 3종의 신기가 환원된 후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원령의 탓이라 여기며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법황은 표면적으로는 신기의 환원으로 인해 정통성을 되찾은 듯이 보였지만, 平家를 몰락시키고 얻어낸 것이 었던 만큼 또 다시 정통성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게 된 것이다. 『平家物語』는 대략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맺는다. 하지만, 平家를 멸망시키고도 완전한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한 고시라카와 법황의 왕권 부흥에의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간조마키(灌頂卷)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조마키는 卷十二 뒤에 독립적인 한 장으로 기록된 장으로, 그 성립 과정 자체를 두고서도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異本마다 그 성립 유무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覺一本 작자 나름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平家が 단노우라 전투에서 전멸하게 된 것은 文治 元年(1185) 3월의 일로, 平家の 무장들이 전투에서 거의 목숨을 잃고 平家が 비호하던 8세의 어린 천황 안토쿠마저도 조모인 니이도노와 함께 바닷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안토쿠 천황의 어머니인 겐레몬인도 두 사람의 뒤를 이어 바닷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源氏에 의해 배 위로 끌어올려져 본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 후, 겐레몬인은 오로지 극락왕생을 바라게 되는데, 이러한 그녀의 만년을 기록한 부분이 『平家物語』의 간조마키이다.

겐레몬인은 권력자 기요모리의 딸로 태어나, 17살에 입궁하여 女御, 다음 해에는 中宮, 24살에 황자를 낳고 국모가 되어 겐레몬인이라는 院號를 받게 된, 실로 여성으로서의 행복과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여성이었지만, 平家の 몰락과 함께 그 행복과 영화도 다 사라지고 만다. 기요모리의 딸, 다카쿠라 천황의 중궁, 안토쿠 천황의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하지만, 그녀의 실질적 묘사는 단노우라에서의 안토쿠 천황이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과 그에 이은 장면에서 조금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녀의 실상은 간조마키 속에서만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간조마키는 얼핏 보면 建禮門院만을 중심으로 다룬 장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황과

의 대면이다.

고시라카와 법황이 자코인(寂光院)²³⁾으로 겐레몬인을 찾아간 것은 文治 2년(1186) 봄의 일로, 단노우라(壇の浦) 전투 후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다. 法皇은 겐레몬인의 남편인 다카쿠라 천황의 아버지이므로, 두 사람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 해당되며, 동시에 겐레몬인은 고시라카와 법황의 養女이기도 했다.

여기서 『平家物語』작자가 겐레몬인을 마지막 장에 부각시킨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겐레몬인은 자신의 친아버지인 기요모리와 養父인 고시라카와 법황 사이에 정치적으로 낀 존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그녀의 위치 자체가 『平家物語』속의 큰 세력 법황과 平家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겐레몬인은 平家 一族이 모두 망하게 된 것도 기요모리의 죄업이 자손에게까지 미친 결과이며, 佛法과 王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시켰으며, 神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기요모리의 악행이 말세적 세상의 원인이 되었다며 종교적 실천만이 스스로의 죄에 의하여, 정처없이 떠돌며 고통스러워 하는 一族의 혼을 정화하고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고시라카와 법황은 자주 심한 병을 앓았는데, 전신에 종기가 돋고 복부가 임신부와 같은 정도로 증상이 심하자, 스토쿠인(崇徳院)·안토쿠 천황의 진혼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²⁴⁾ 고시라카와 법황은 保元 5년(1157)의 난과 이 지쇼(治承)²⁵⁾·슈에(壽永)²⁶⁾의 내란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형인 스토쿠인과 손자인 안토쿠 천황을 토벌함으로써 권력을 획득,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훗날, 그 원령에게 두려움을 느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모노가타리의 중국에 있어서의 법황과 겐레몬인의 대면의 설정은 결코 단순한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平家物語』의 작자는 卷十二 뒤에 간조마키라는 독립된 장을 두어 법황이 平家の 생존자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겐레몬인을 찾아가는 것을 중심적 내용으로 뒀으로써 그녀가 平家の 진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함께 그녀와의 화해를 통해 법황의 부족한 정통성을 만회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황은 王權의 중심에 서 있었으면서도 정통성이 결여된 입지에 있었다는 상황으로 인해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平家와의 대결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황은 불교 세력의 이용과 시게모리, 다키쿠라 등의 중재로 平家와의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平家の 세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는 배후에서 무사, 사원 등의 諸세력을 조종하고, 그들 각각의 대립을 격렬화시킴으로써 교묘하게 자신의 세력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平家物語』에서의 고시라카와 법황은 사실상 平家の 타도보다는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애썼던 것 같은 인상이 든다. 따라서, 당연 법황은 平家 쪽에 있던 3종의 신기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단노우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平家 一族을 모두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기 중 보검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여전히 불안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세상의 민심도 흉흉하여, 이후 대지진과 같은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나자 모두들 平家の 怨靈이 저지른 짓이라는 인식이 퍼져간다.

법황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교묘한 계략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황은 엄청난 무력을 소유한 平家와 주변 세력을 잘 이용하여 결국 平家を 멸망으로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다. 법황과 기요모리의 격렬한 다툼은 모노가타리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두 기둥이었던 법황과 기요모리의 다툼에서 기요모리가 죽게 됨으로써 平家は 더 이상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平家は 『平家物語』속에서 필연적으로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작자는 『平家物語』를 몇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平家와 源氏の 대립의 양상을 증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다가보다는 平安 말기의 불안정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부각시켜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사실 법황은 모노가타리 속에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다는 그림자로서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平家 멸망의 주모자로 『平家物語』 전체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황의 동향이 平家 멸망 구도와 엮어지는 과정 속에서 3종의 신기에 법황이 집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정통성이 부족한 법황의 입지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았다.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던 법황과 기요모리의 대립 양상은 결국 법황이 源氏쪽으로 마음을 돌리면서 平家の 멸망이라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는 3종 신기의

환원으로 더욱 부각되는데, 3종의 신기 중 칼이 平家와 함께 바닷 속으로 가라앉음으로써 법황은 완전하게 정통성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대지진이 일어나는 등 세상도 불안해하여, 작자는 이것의 타개를 위하여 모노가타리 마지막 부분에 기요모리의 딸이자 고시라카와의 며느리, 양녀라는 상황으로 인해 법황과 기요모리 사이에 끼어있던 겐레몬인과 법황의 대면이라는 장면 설정을 통해 平家와 화해를 이루고 겐레몬인이 왕생을 이루었다는 문장을 통해 平家 전체의 진혼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법황은 거의 완전하게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았듯, 『平家物語』의 작자는 기요모리라고 하는 인물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며, 또한 平家が 어떻게 하여 정권을 장악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平家物語』는 平安 말기의 불안정한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역사의 필연 속에서의 諸세력의 동향을 平家の 운명과 엮어내어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注】

- 1) 이하 『平家物語』의 본문 인용은 高木市之助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平家物語』(岩波書店, 1983)에 의하며, 작품명은 최초 표기의 경우에는 병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한자로 한다. 단, 인물명에 대해서는 각 장의 서두에는 두 세 번 병기로 표기하고, 반복될 경우에는 한글 표기로 한다.
- 2) 祇園精舎는 中印도에 있으며, 석가가 설법했다고 전해지는 大寺이다. 精舎내의 無常堂의 네 쪽 모서리에 있는 종은 아픈 승려가 임종할 때, 자연스럽게 울려서 제행무상이라는 四句를 말함으로써 승려는 고통을 잊고 왕생한다고 한다. 또한, 沙羅는 상록수의 일종이며, 雙樹는 사망으로 두 줄 기씩 쌍생하는 나무를 가리킨다. 석가가 入滅했을 때, 雙樹는 말라서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 3) 石母田正, 『平家物語』, 岩波書店, 1982, pp.75-77.
- 4) 南北朝 시대에 활약한 아카시 가쿠이치(明石覺一)라는 비파법사가 제자를 위해 남겼다고 전해지는 『平家物語』 語り系の 대표적 작품.
覺一本에 대해서는 山田孝雄씨 이래, 高橋貞一, 渥美かをる 양 씨의 연구 등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실린 『平家物語』는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高木市之助씨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5) 五味彦彦 「平家物語の物語的空間」 『平家物語 主題・構想・表現』, 汲古書院, 1998, p.219.
- 6) 院ハコノ次ノ位ノコトヲヲボシメシワツライケリ。四宮ニテ後白河院、待賢門院ノ御ハラニテ、新院ニ同宿シテヲハシマシケルガ、イタクサタダシク御アソビナデアリトテ、即位ノ御器量ニハアラズトオボシメシテ、近衛院ノアネノ八條院ヒメ宮ナルヲ女帝カ、新院一宮カ、コノ四宮ノ御子ニ條院ノオサナクヲハシマスカタナドヤウヤウニヲボシメシテ.. (본문 인용은 日本古典文學大系 『愚管抄』(岩波書店, 1983), p.216에 의함.)
- 7) 就中に、永曆應保の比よりして、院の近習者をば内より御いましめあり、内の近習者をば院よりいましめらるる間、上下おそれをののいてやすい心もなし。ただ、深淵にのぞむで薄氷をふむに同じ。主上上皇、父子の御あひだには、何事の御へだてかあるべきなれども、思のほかの事どもありけり。是も世澆季に及で、人臍惡をさきとする故なり。主上、院の仰をつねに申

かへさせおはしましけるなかにも、人耳目を驚かし、世もって大にかたふけ申事ありけり。
(텍스트 『平家物語 上』, p.108)

- 8) 장남 重盛는 고시라카와院의 근신이었고, 무네모리(宗盛)는 建春門院의 양자였다. 또한, 요리모리(頼盛)는 美福門院과 그의 딸인 八條院에 봉사했고 八條院의 女房을 처로 맞이하게 되며, 노리모리(教盛)는 高倉 천황을 동궁 때부터 모셔 그 근신이 된다.
- 9) 今成元昭 「南都北嶺」 『講座日本文學 平家物語 下』, (至文堂, 1978), p.171.
- 10) 杉本圭三郎 「清盛像の形成と展開」 『講座日本文學 平家物語 下』, 至文堂, 1978, p.54.
- 11) いまめかしき申事に候へ共、七代までは此一門をば、いかでか捨させ給ふべき。それに入道七旬に及て、餘命いくばくならぬ一期の内にだにも、ややもすれば、亡すべき由御ばからひあり。申候はんや、子孫あひついで朝家にめしつかはれん事有がたし。(텍스트 『平家物語 上』, p.253)
- 12) 北川忠彦, 『軍記物論考』, 三彌井書店, 1989, p.268.
- 13) 法皇は主上外戚の平家にとらはれさせ給て、西海の浪の上にただよはせ給ふことを、御歎きあつて、主上并に三種神器宮こへ返し入奉るべきよし、西國へ院宣を下されたりけれ共、平家もちるたてまつらず。(텍스트 『平家物語 下』, p.120)
- 14) 是に、其のをきし八尺の勾璽・鏡と草那藝劍と、亦、常世思金神・手力男神・天石門別神を副へ賜ひて、詔ひしく、「此の鏡は、専ら我が御魂と爲て、吾が前を拜むが如く、いつき奉れ」とのりたまひ。(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古事記』, 小學館, 1997), p.115.
- 15) 村上重良(張鎭漢, 吳相鉉 역), 『天皇과 天皇制』, 도서출판 韓元, 1989, p.123.
- 16) 「本朝には神代よりつたはれる三の御寶あり。内侍所・神璽・寶劍これ也。相構て事ゆへなくかへしいれたてまつれ」と仰下さる。(텍스트 『平家物語 下』, p.190)
- 17) 八嶋へかへりたくは、一門のなかへいひおくつて、三種の神器を宮こへ返しөөれたてまつれ。しからば八嶋へかへさるべし。(上同書, p.242)
- 18) 内侍所・神璽・寶劍もなくして御即位の例、神武天皇よりこのかた八十二代、これはじめとぞうけ給はる。(上同書, p.292)
- 19) 其夜の子の剋に、内侍所しるしの御箱太政官の廳へいらせ給ふ。寶劍はうせにけり。神璽は海上にうかびたりけるを、片岡太郎經春がとりあげたてまつたりけるとぞきこえし。(上同書, p.344)
- 20) 今度の事は是より後もたぐひあるべしもおほえず。十善帝王都を出させ給て、御身を海底にしづめ、大臣公卿大路をわたしてその頸を獄門にかけらる。昔より今に至るまで、怨靈はおそろしき事なれば、世もいかがあらんずらむとて、心ある人の歎かなしまぬはなかりけり。(上同書, p.381)
- 21) 가마쿠라 초기의 수필집. 뛰어난 자조 문학으로 전반에는 자신이 체험한 화재와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사회 변동을 기록하고, 후반에는 한적한 암자 생활의 즐거움과 의문을 제시하여 자신을 응시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불교적 무상관을 바탕으로 깔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슬회한 작품.
- 22) 家の内にをれば忽にひしげなんとす。走り出づれば、地割れ裂く。羽なければ、空をも飛ぶべからず。龍ならばや雲にも乗らむ。恐れの中に恐るべかりけるはただ地震なりけりとこそ覺え侍りしか。(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方丈記・徒然草・正法眼藏隨聞記・歎異抄』, 小學館, 1995), p.25.
- 23) 京都市 左京區 大原에 있는 천태종의 절이다. 이곳은 비구니들의 절이었으며, 聖德太子가 창건했다. 平家が 멸망한 후, 安德 천황의 어머니인 建禮門院이 은둔하면서 高倉, 安德 두 천황과 平家一族의 명복을 빈 장소로 유명하다.
- 24) 小林美和 『AERA MOOK 平家物語がわかる』, 朝日新聞社, 1997, p.101.
- 25) 平安말기, 高倉・安德 천황때의 연호로 1178년 8월 4일부터 1181년 7월 14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 26) 平安말기, 安德천황 때의 연호로, 1182년 5월 27일부터 1185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平家物語』に關する一考察

白 珍 淑

『平家物語』は平家と源氏との争亂を扱っている作品でありながら、その内面にはいろいろな政治・思想・宗教などが絡まれている。特に、仏教・神道・王權で代表される諸勢力と平家の滅亡構図との関連性は注目すべきである。

この小考では、その中でも王權の代表者と言える後白河法皇と平家一族の滅亡構図との関連性を中心に考察して見た。事實上、平家の滅亡に一番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法皇について『平家物語』は直接には言及していない。しかし、作品の内面に隠されている法皇に対する理解なしでは『平家物語』を理解できないと思う。法皇は王權の中心にいたが、正統性に欠けていたため、当時最高の勸力を握っていた平家との対決を避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平家物語』での後白河法皇は實際平家の打倒よりは、自分の正統性の確立のために心を砕いたと思われる。そのため、當然のことながら、法皇は平家側にあった三種の神器に執着したのである。法皇は危機に出会う度に、巧妙な計略で危機を免れる。實際、直接的に武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法皇はおびただしい武力を持っていた平家と周辺勢力をよく利用して、結局平家の滅亡まで導いたのである。しかし、壇の浦合戦で平家一族を全部滅亡させたにもかかわらず、神器の一つである宝剣をなくしたことで、法皇は相変わらず不安な地位を維持することになる。『平家物語』ではその解決のために物語の最後に平清盛の娘である建禮門院と後白河法皇との對面という場面を設定して平家一族の鎮魂を擔當している。こうして法皇はほぼ完全に自分の正統性を確立する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に、後白河法皇は『平家物語』の中で直接的に描寫されるのではなく、影の存在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が、實際には平家滅亡の主謀者として『平家物語』の全体で語られており重要な役割を擔當している。それで、後白河法皇と平家一族の滅亡とが絡み合う過程の中で、三種の神器に法皇が特に執着することに主眼点をおいて、正統性が欠如されていた後白河法皇の立場と関連させて考察して見た。